

‘흥행보증’ 한국 드라마 세계 시장 사로잡다

한콘진, ‘홍콩 FILMART’ 참가 188억원 수출 계약 성과 향후의 품격·리갈하이 등 판권 판매...전년비 15% 증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이 홍콩 필름아트에서 국내 방송 콘텐츠 1660만 달러(한화 약 188억 원)의 수출성과를 거뒀다.

콘진원은 문체부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4일간 홍콩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홍콩 국제영화 & TV마켓(FILMART·이하 필마트)'에서 1660만 달러의 방송 콘텐츠 수출 계약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5% 증가한 실적으로 드라마·애니메이션, 웹콘텐츠의 폭발할 만한 성과로 향후 방송콘텐츠 전망을 밝게 한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홍콩 필마트에는 35개국 880여개 기업에서 8800여명이 참가했다. 한콘진은 운영한 한국공동관에는 25개 방송콘텐츠 기업이 자리해 총 4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홍콩, 일본, 타이완, 싱가포르,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에 우리 콘텐츠를 판매했다.

구체적으로 JTBC '리갈하이', KBS2

'국민 여러분!', MBC '아이템', SBS '황후의 품격', tvN '진심이 닿다' 등 주요 방송사의 드라마 판권이 거래됐다.

이 밖에도 질십이초의 '이너뷰' 등 웹드라마, 채널A의 '보컬플레이' 등 새 방송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최근 동남아시아 방송시장에서 IPTV 전송권을 포함 포맷, 리메이크 판권 판매 등 폭넓어진 콘텐츠 거래 유형이 나타났다.

이번 필마트에는 282개의 최대 참가사를 거느린 중국을 비롯해 홍콩, 타이완 등 중화권의 주요 미디어·제작사는 물론 일본,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이 국가 공동관 형태로 대거 참가했다. 그만큼 아시아 지역에서의 판매 경쟁이 치열하다는 반증이다. 특히 중국은 베이징 외에 충칭, 광저우, 항저우 등 지방정부의 공동관 참여가 눈에 띄었다.

더불어 필마트 현장 업계 간담회에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구미권에서도 국가관 참여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격



화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시장 진입전략 수립과 새로운 콘텐츠·플랫폼 등 수출역량 강화에 많은 의견이 모아졌다.

한콘진 김영준 원장은 "방송수출 최대지역이었던 중국을 넘어 동남아 지역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방송 콘텐츠가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콘진은 ▲MIPTV(4월 프랑스) ▲STVF(6월 상하이) ▲Telefilm(6월 베트남) 등 상반기 주요 방송콘텐츠마켓에 국내 방송콘텐츠 기업의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빛가람 시대 개막

오늘 신청사 개청식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27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신청사(사진) 개청식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알린다고 26일 밝혔다.

농기평 신청사는 부지 면적 5425㎡(연면적 3826㎡)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17년 11월 착공해 지난 2019년 1월 준공됐다.

농기평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9년간의 경기도 안양 시대를 마감하고 나주 빛가람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농기평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9년도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개청식은 나주시립국악단의 환영을 담은 문화행사로 시작해, 청사 신축 경과보고, 청사 신축 유공자 시상, 주요 내빈 축사, 지역 인재 미술품 전달식, 농기평 캐릭터상 제작식 등 순으로 진행됐다.



행된다.

또 목포대학교와 전남예술고등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학생 미술품을 농기평 신청사에 전시하고 홍보하는 등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오경태 원장은 "빛가람혁신도시에서 개원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적극적 응원을 위해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 앞장서겠다"며 "임직원의 노력이 빛을 발해 농식품 산업발전과 광주·전남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전력산업분야 윤리경영실천 간담회

2019. 03. 26(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앞줄 왼쪽에서 9번째)과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장(왼쪽에서 8번째)이 간담회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한국전력,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앞장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력산업분야 윤리경영 실천 간담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공사협회는 26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전력산업분야 윤리경영 실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윤리경영 실천간담회는 전력산업분야의 반부패 협조체제 구축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리경영 실천사례 및 계획 발표, 다양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해 윤리경영 의지를 다졌다.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한전의 노력뿐만 아니라, 전기공사협회를 중심으로 전력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을 때 가능

하다"며 "한전을 비롯한 전력산업계에 전반적으로 청렴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협회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전기공사협회와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전력산업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전력거래소, 미세먼지 취약층 보호 나서

나주시에 공기청정기 전달

전력거래소 최근 저소득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나주시에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마스크를 전달했다.

최근 전남지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산업계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감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공헌활동을 준비했다는 게 전력거래소 측의 설명이다.

유석태 전력거래소 기획본부장은 "미세먼지가 유래 없이 심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력거래소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이 미세먼지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 클라우드로 전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대표 홈페이지를 클라우드로 전환 완료하고 2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KCA는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클라우드 산업활성화를 위해 선도하고 있다.

또 클라우드 전환으로 시스템 보안 강화 및 운영 안정성을 확보, 안정적인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KCA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참여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 기능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서석진 KCA 원장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연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공 시스템의 혁신 및 서비스 창출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CA는 올해 하반기까지 전파관리플랫폼,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금사업관리 시스템 등 총 7개의 주요 업무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완료해 정보자원의 공유와 개방, 수요자 중심 정보 서비스 개선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농장**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구독하세요

그린알로에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